

부산전국체전 성화봉송 첫 출발… 16개 구·군 달린다

성공개최 기원 성화 합화·출발식 오는 17일 전국체전 개막식서 점화 4일간 1200여명 주자들과 한마음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시민광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성화 합화 및 출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금정산 고당봉(희망의 불), 유엔평화공원(평화의 불), 가덕도 연대봉(비상의 불), 강화도 마니산(화합의 불) 등 4곳에서 채화된 불꽃을 하나의 불꽃으로 합화한 이후 성화 봉송의 첫 출발을 알렸다.

행사는 박형준 부산시장 겸 시 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김석준 시 교육감, 장인화 시 체육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성화 합화, 성화봉 점화 및 최초 봉송 주자 인계, 어린이 치어리딩단 축하공연, 봉송 주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합화 및 출발식이 열린 13일 부산 연제구 시청 시민광장에서 성화 봉송 첫 주자인 권중현 원로 체육인(1970년 방콕아시안 게임 사이클 은메달리스트) 등이 성화를 들고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출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청 1층 성화보존대에 보관된 성화는 각 채화지의 최종 주자들이 들고 행사장에 입장한 후, 합화자로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 겸 시 장애인체육회장(화합의 불), 안성민 시의회 의장(평화의 불), 김석준 시 교육감(희망의 불), 장인화 시 체육회장(비상의 불) 등에게 인계되었다.

성화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불꽃으로 하나의 성화로 합쳐지고, 합화된 성화는 이날 시청 앞을 출발해 연제구를 시작으로 4일간 1200여 명의 주자들과 함께 16개 구·군을 달리게 된다.

이후 부산 시민의 체전 성공 염원을 담아 오는 17일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성화

대에 점화돼 체전 기간 함차게 타오를 예정이다.

성화 봉송 시작을 알리는 첫 주자는 권중현 원로 체육인(전 부산시체육회 부회장, 1970년 방콕아시안게임 사이클 은메달리스트)이 맡고, 이어 차세대 체육인을 대표하는 부산의 대표 꿈나무 이건호(대신중3, 육상)와 황철후(광남초6, 수영) 두 선수가 성화 봉송 부주자로 참여한다.

박형준 시장은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부산 시민들이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했다"며 "오늘 첫 출발을 시작한 성화는 4일간 16개 구·군, 1200여 명의 봉송 주자들이 체전 성공 염원을 담아 한 마음으로 달리게 되며, 하나로 타오르는 성화가 국민 화합의 상징이자 생활체육 천국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外人 취업비자 시범사업 실시

광주시가자동차부품제조 분야외국인 기능인력 도입을 위해 취업비자(E7-3)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7-3 비자는 국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일반기능인력 취업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며 광주시는 지난 9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16개사 122명의 인력 신청을 받았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순천시

아부다비서 생태도시 위상 높여

순천시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석하여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노관규 시장 등 방문단 일행은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 가입했다. 이와 함께 IUCN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와 교류를 넓혔다.

행사장에서 순천만 복원과 흑두루미 보호를 위한 전봇대 철거, 국가정원 및 오천그린광장 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며 순천이 자연기반해법(NbS)을 실천한 대표 도시임을 설명했다.

/순천(전남)=양수영 기자

경주시

긴급돌봄 'K보듬 6000' 가동

경주시는 이달부터 영유아 긴급돌봄 서비스 'K보듬 6000'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모의 맞벌이와 야간근무, 갑작스러운 일정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 또는 일시 보육 시스템이다.

대상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며, 건천어린이집에서 운영한다. 시간은 평일 오후 4시~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다.

경주에 주소를 둔 보호자는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

‘제17기 귀어학교 입학식’ 열어

경남도는 13일 오전 통영시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관에서 '제17기 경상남도 귀어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7기 모집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35명이 지원해 심사를 거쳐 남성 19명, 여성 1명이 최종 선발됐다.

연령대는 30대 7명, 40대 5명, 50대 8명으로 청년층이 60%를 차지했다. 지원자의 57.1%가 다른 시도 출신이다.

경남 귀어학교는 매년 귀어 희망인들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교육을 병행해 어업 현장에 필요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진주시-투레트시, 미술교류 확대 논의 “‘김해국가유산야행’서 가을밤 즐겨요”

〈프랑스〉

투레트시 부시장, 남강유등축제 방문

진주의 대표축제인 남강유등축제를 계기로 프랑스 투레트시 부시장 일행이 진주시를 찾아 두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모로 투레트시 부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3일부터 6일까지 진주에 머물며 유등축제 점등식에 참석하고, 지역 주요 문화시설을 둘러봤다. 투레트시는 지난해 진주시와 우호도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의 대표축제인 남강유등축제의 개최를 축하하고, 주요 문화예술 인프라와 두 도시 간 미술 교류 확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관람 및 교류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조규일 시장과 '세바스티앙 모로' 투레트 부시장인 진주성 중영에서 간담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올해 3월 '투레트시 바이올렛축제'에서 4000개의



프랑스 투레트시 부시장 일행이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계기로 진주시에 방문했다.

바이올렛 꽃으로 장식한 진주시의 관광캐릭터 '하모'와 진주를 대표하는 '유등'을 소개한 것을 비롯해 7월 이상자 화백의 '이젤'이 프랑스에서 진주로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세바스티앙 부시장은 이상자 화백 아틀리에의 프랑스 정부 지정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 선정에 따른 현판식에 조규일 시장의 축하영상과 진주시 우수 공무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수로왕릉·수릉원 일대에서 진행

김해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수로왕릉과 수릉원 일대에서 '2025 김해국가유산야행'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야행은 '金海, 빛을 담고 그 리다'를 주제로, 단순히 유적을 밝히는 축제를 넘어 수로왕과 허왕후의 서사와 김해 문화의 일상이 빛으로 어우러진 특별한 도심의 풍경을 담아낸다.

수로왕릉과 고분군이 이어진 고즈넉한 야경, 국가유산 송선전 제례, 가야 복식과 런웨이 퍼포먼스는 김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이며, 무엇보다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마련된다.

행사는 전통적인 '8夜(야경·야로·야설·야사·야화·야시·야식·야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야경은 수로왕릉과

고분군의 고즈넉한 밤 풍경을 빛으로 연출하며, 야로는 배우 도슨트 해설과 천문관측 투어를 제공한다. 야설은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퍼포먼스를 통해 가야사의 가치를 전달한다. 야시는 가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화는 전통 등불과 한지 조형물을 결합해 빛의 공간을 연출한다.

특히 18일 밤 수로왕릉 일대 1000대 드론이 밤하늘에 꿈처럼 떠오르는 구름물고기, 왕릉을 화폭 삼은 미디어파사드 등을 활용한 런웨이 형식의 퍼포먼스가 새롭게 선보인다.

수로왕릉은 대한민국 사적 제73호로 가락국을 건국한 왕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이다. 인근에 있는 가야 왕들의 무덤인 대성동고분군은 세계유산이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 운영

산림관광 공동마케팅 첫 사업

경북도가 25일부터 백두대간권의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 도내 6개 시·군과 함께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건강을 높이기 위한 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는 이들 백두대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하는 산림관광 공동마케팅의 첫 사업이다. 이 행사는 이들 시·군을 돌며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 12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각 지역의 코스는 10~15km 내외로 매회 약 4시간 30분 이상 오르막과 좁은 길이 포함된 중상급 수준의 트레일로 돼 있다. 참가자들은 모든 코스를 트레킹 전문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시작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

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전 구간을 안전하게 걷고 6개 지역의 형태를 본뜬 퍼즐형 스티커를 제공 받는다.

모든 코스를 완주해 조각을 모아 백두대간의 지도를 완성하면 기념 완주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경주 보문골프클럽, 라운딩 중 농약 살포

관계자 “정기 방제 작업일 뿐”

경주시 보문골프클럽이 고객이라운드를 즐기던 중 대량의 농약을 살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보문골프클럽은 고객들에게 별도의 안내나 대피 조치 없이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용객들은 눈과 목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정기 방제 작업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운딩 중이던 손오씨(65·대구)는 “세

컨드 샷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코스 관리 차량이 불과 몇 미터 앞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농약을 뿌렸다”며 “고객이 있는 바로 옆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골프장은 처음 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약 성분 중 일부는 흡입 시 호흡기 자극, 알레르기 반응, 심할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경기 도중 살포된 농약은 이용객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